미디어법 강행처리… 정치권 향후 진로는

‘격투기 국회’ 기능 올스톱 되나

野 의원직 집단 사퇴·장외 강경투쟁 선언
與 대대적 인적 쇄신 … 정국 주도권 잡기

한나라당이 22일 민주당 등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 미디어 관련법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직 집단 사퇴와 장외 집회 카드를 내세우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키로 했으며 여권은 대대적인 국정쇄신 드라이브를 통해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면투쟁 선언한 야권=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강행 처리로 여야 관계는 앞으로 상당기간 전면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 통과 직후 규탄대회를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국회 내에서 소수당의 한계를 절감한 만큼 범 진보진영의 결집을 통한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 의사를 천명하는 등 민주당이 최고조의 투쟁 방향을 잡고 있다.

정 대표는 미디어법 처리 직후 열린 긴급 의총에서 “힘이 부족해 패했지만 책임을 느끼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원내에서만 싸우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강경투쟁을 경고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주부터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장외 집회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각시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부쳤다”며 “이제 국민과 함께 오만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쇄신 나서는 여권=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민주당과의 협상 결렬을 전격 선언하고 오후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정국 운영이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상징법안인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또 다시 실패한다면 여권의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정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친서민 강화 정책과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와 내각 개편, 조기 전당대회 등 이명박 대통령의 대대적인 국정쇄신책을 앞두고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절실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본격적인 국정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여권은 당정청 개편→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한 국민통합 방안 제시 등의 예정된 수순대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며 미디어 관련법 강행 처리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도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민주당이 국민정당이라면 장외로 나가기 보다는 민생과 경제를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당 핵심당직자 100명이 22일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날치기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주당 광주시당·언론단체 등 성명

민주당 광주시당은 22일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규탄대회 갖고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재벌과 거대 보수 언론들에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악법을 강압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무도한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는 언론장악을 통한 집권영구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고 비난했다.

시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광주시민과 더불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날치기 언론악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어 시당은 “모든 당직자들이 반민주 미디어악법 원천 무효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와 광주·전남언론노조협의회 등 언론단체도 이날 오후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과 수구족벌 신문에 방송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엄청난 과오로 기억될 것”이라며 “여론수렴은 물론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한나라당의 법안 통과는 절차상·내용상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장악에 눈이 멀어 서민과 노동자들의 참혹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은 하루 빨리 언론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민생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해 끝까지 싸우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야, 대리투표·재투표 적법성 논쟁

한나라당이 22일 단독으로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대리투표 및 재투표를 이유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의 법안 투표는 각 의원 자리의 전자투표기 단추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의장석 주변에서 여야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의원들은 자신의 의석에 미처 앉아있을 새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4번의 투표는 진행됐고 모두 통과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리투표가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즉 표결 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소속 의원들 의석을 돌며 ‘찬성’ 버튼을 눌렀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대리투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몸싸움 와중에도 의원들이 차례로 자신의 의석에 가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리투표 행위에 대한 입증이 무효 논란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사 등 언론사가 찍은 사진과 화면을 보며 대리투표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찾고 있다”며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또 다른 논란 거리는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놓고 한 ‘재투표’. 이날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방송법 수정안 1차 투표 후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당시 본회의장 내 전광판에는 ‘재적 294명, 재석 145명’이라고 나타났다. 표결 성립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며 재투표를 선언했고, 민주당 측은 ‘원천무효’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를 놓고 ‘투표 종료가 선포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는 주장과 ‘재적의원 과반 미달은 투표의 불성립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재투표 및 대리 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표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건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신문법은 대리투표를 통해 투표가 이뤄진 만큼 원천무효”라며 “또한 방송법은 294명 가운데 145명 밖에 투표를 안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부결”이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결정적 순간에 힘 보탠 박근혜

미디어법 제안 내용 대부분 수용에 직권상정 찬성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결국 막판에 한나라당 손을 들어줬다.

19일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급제동을 걸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22일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박 전 대표가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수용됐다는 평가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주변 대치 상황때문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TV로 표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야) 합의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에는 (대기업·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다 있고 여론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됐다”며 “당이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박 전 대표의 위력을 확실히 보여줬다며 박 전 대표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에서는 박 전 대표의 발목 잡기에 대해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어 긍정적 효과만 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표의 19일 발언을 반겨온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단체 등에서는 “박 전 대표의 본질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며 “무엇이 박 전 대표의 소신인지 알 수가 없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무도 믿지 말고 한빛고시학원만 따르라!! www.hanbitgosi.co.kr
정부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 특채 통해 3년간 기능직 정원의 15%씩 일반직 전환!!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특채
주말반(토/일) 오전 10:00 ~ 13:00 사, 회 오후 14:00 ~ 17:00 행정학 2개월완성 합격맞춤강의 개강 7월25일
수석합격
오직! 일반직전환 특채대비를 위한 전문강사진! 전용교재!
핵심이론과 쪽집게 문제풀이 특강
일반직 전환특채 합격도 한빛이 주도한다!
업도적 1위! 100%적중도전
전국 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에서 당신은 수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 광주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234-0234]